

초록번호 15-6

제 목	국 문	강화지역 암의 유병율		
	영 문	Cancer Prevalence in KangHwa Coun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상옥, 오희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Yi Sang-Wook, Ohrr Heechoul Dept.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분 야	역학	발 표 자	이상옥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암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의 하나이다. 암환자의 치료와 관리, 감독에 드는 의료비는 각 국가들의 의료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데에는 흔히 3가지의 지표가 쓰이고 있다. 발생율은 인구집단에서 일정기간동안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망률은 인구집단에서 일정기간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존율은 환자가 진단받은 시점에서 특정기간 동안 살아남을 확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암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또다른 지표로 유병율을 들 수 있다. 유병율은 인구집단에서 일정시점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의 수라고 할수 있다. 유병율은 그 질병에 의한 지역사회의 부담을 평가하는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p> <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는 1983년부터 강화지역에서 암등록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강화지역의 암의 유병율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암 유병율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p> <p><b>2. 연구 방법</b></p> <p>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1983년부터 시작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의 자료중 1983년에서 1992년까지의 10년간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자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하고 있다. 1992년까지 발생한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여부도 추적조사하였다.</p> <p>유병환자는 1983년에서 1992년 발생한 환자중 각 연도의 1월 1일 생존한 환자의</p>				

숫자로 정의하였으며, 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환자로 정의하였다. 이 기간동안 강화지역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421명이었으며, 그중 396명이 1993년 1월 1일 현재 생존해 있었고, 1005명이 사망하였으며, 20명은 추적실패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시점이 기록되어 있다.

유병환자의 숫자를 강화군의 그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그 연도의 유병율을 구하였다. 추적조사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시점까지 생존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 3. 연구결과

1993년 1월 1일 현재 전체암의 보통 유병율은 인구 10만명에 525.1명이었으며, 남자의 유병율은 인구 10만명에 498.7명이었고, 여자의 유병율은 인구 10만명에 551.0명이었었다. 남자에서 유병율이 가장 높은 암은 위암이었고, 두 번째는 폐암, 세 번째는 간암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이었다. 남자에서 위암의 유병율은 인구 10만명에 202.9명이었으며, 폐암은 인구 10만명에 45.1명, 간암은 10만명에 28.2명, 대장암은 인구 10만명에 25.4명, 직장암은 인구 10만명에 22.5명, 식도암은 인구 10만명에 19.7명이었었다. 여자에서 유병율이 가장 높은 암은 자궁경부암이었고, 두 번째는 위암, 세 번째는 유방암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갑상샘암, 직장암, 폐암의 순서였다. 여자에서 자궁경부암의 유병율은 182.7명이었으며, 위암은 인구 10만명에 83.1명, 유방암은 인구 10만명에 55.4명이었고, 갑상샘암은 인구 10만명에 52.6명, 직장암은 인구 10만명에 33.2명, 폐암은 인구 10만명에 24.9명이었었다.

### 4. 고찰

암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암에 의한 문제를 측정하는 지표로 흔히 발생률, 사망률, 생존율이 이용되고 있으며 암의 유병율은 암에 의한 지역사회의 부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유병율에 관하여 보고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1983년부터 강화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강화지역에서의 암의 유병율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미국 코넥티컷 암등록사업의 47년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7년간 추적한 자료는 전체자료의 95%, 17년간 추적한 자료는 전체자료의 84%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10년간 추적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다소의 제한점이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사회암등록사업에 기초한 암 유병율의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